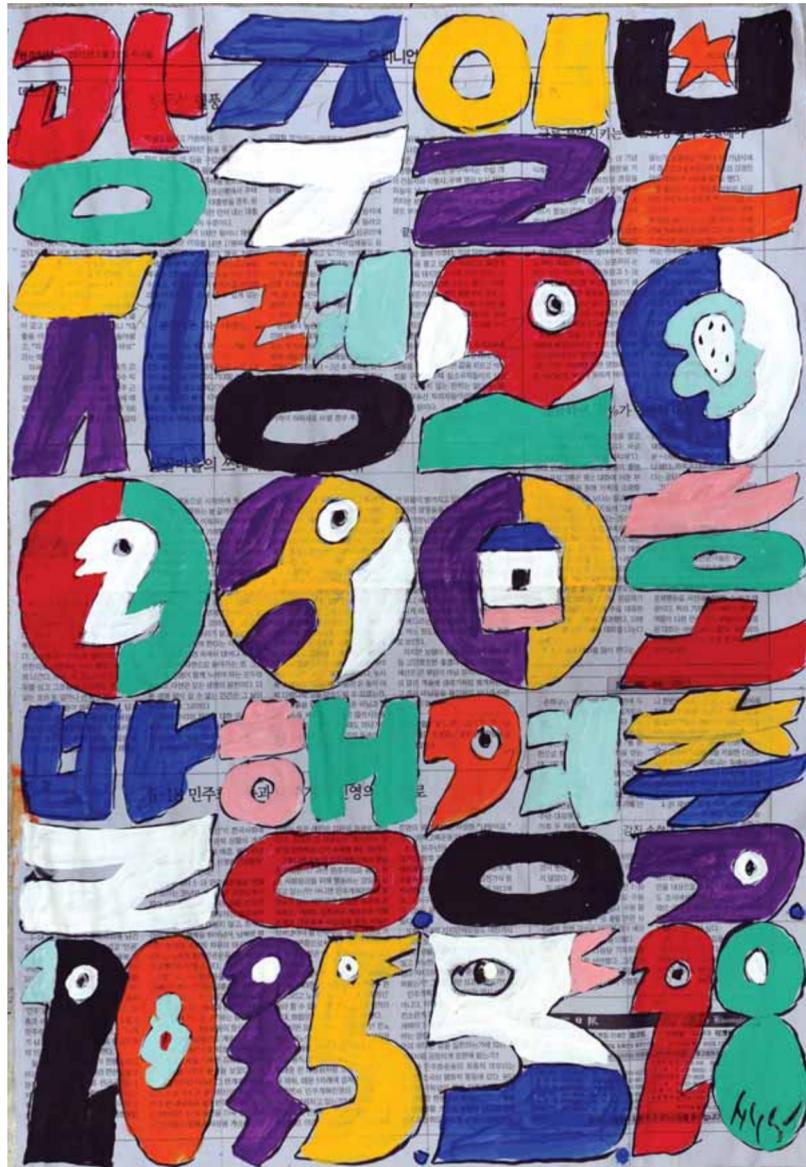




축하 휘호·그림

미래를 열어라
 세상을 비춰라
 지역을 밝히려



▲ 휘호 '계왕개래'

계왕개래(繼往開來·옛 것을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앞서 간 선인을 잇고 후인들을 위해 길을 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문의 할 일이다. 지령 2만호 발행을 맞은 광주일보는 호남역사의 산증인이나 다름없다. 광주일보는 그간 63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후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창'이 되어주어야 한다. 옛 사람들과 역사적 사건들이 들려주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겠다. 참언론으로 거듭 태어나 시대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광주일보가 돼주길 바란다.



서예가 학정 이돈홍

- 학정서예연구원 원장
- 국제서예가협회장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 중국 광둥성 서법가협회 고문
- 중국 사천성 연합서법예술학원 객좌교수
- 일중서예대상,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본상

◀ 축하 그림 '가족 이야기'

신문은 독자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역민에게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사회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지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경청해야하기도 한다. '광주일보 지령 20000호...'라는 글자들의 형태를 단순화시켜 하나의 구성적인 가족도를 만들어냈다. 뒤섞인 여러가지 색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독자를 의미하고, 그 안에 담긴 눈에는 독자와 기자가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2만호 발행을 축하하며 광주일보가 지역민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이슈로 만들어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길 바란다.



황영성 화백

- 조선대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역임
-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 및 부총장 역임
-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위원 및 이사
- 제2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 25회 몬테카를로 국제회화제 특별상
- 금호미술상, 이인성 미술상

200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41204-중-65779」

조선대학교병원 암센터 (062)220-3060
 CHOSUN UNIVERSITY HOSPITAL

건강심사평가원 2014년

대장암·유방암 수술

적성성 평가결과 1등급

2012,2013년도 대장암 적성성평가 결과 1등급 / 2013년도 유방암 적성성 평가결과 1등급